



**독일 PET 수요 꾸준히 증가  
포장용 29.5%로 가장 많이 사용**

독일 플라스틱 생산업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에서 플라스틱의 사용 용도는 포장용이 29.5%로 가장 많고, 건설 자재 24.5%, 자동차 부품 9.0%, 전자부품 7.5%, 가구 7.0%, 가정용품 4.5%, 농업용 2.0%, 기타 16.0%의 순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PET는 주로 포장용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PET판과 PC판은 건설자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4년간 독일에서 PET와 PC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PET의 경우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17.6% 소비량이 증가했고, 2002년도에는 전년대비

20%,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13.9% 증가해 독일에서 PET의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전체 소비량 증가가 10%대에 머무는 것에 비해서 높은 비율이다.

독일의 화학기업 BASF와 Bayer Material Science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PET와 PC 수요 증가추세는 전세계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PET의 전세계 수요가 2003년도 현재 9백10만톤에서 2010년도에는 천7백50만톤으로 연간 10% 이상 성장하고, PC에 대한 수요도 2003년도 현재 2백20만톤에서 3백80만톤으로 연간 8.0%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PET와 PC의 시장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독일에서 PET와 PC 시장 전망은 비교적 밝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 포장용과 건설 자재로 두 분야를 합치면 54%에 달하므로 PET와 PC의 잠재적 수요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독일의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주로 독일과 유럽 연합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해 온 편이라서, 수입선을 아시아로 갑자기 확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5mm 미만 PET판의 경우 이미 한국이 독일 수입시장에서 선두를 점하고 있는 만큼, 한국제품의 독일 시장 진출은 그리 비관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독일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적 기준을 준수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다면 전망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캐나다, 연포장 시장 꾸준히 증가 한국산 시장 진출 확대 유망

캐나다의 연포장재 수입시장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도에는 전년대비 5% 증가한 총 4억달러가 수입된 바 있으며 최근 금년 1~4월 기간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11.7%가 증가한 1억4천만달러가 수입돼 현지에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산의 시장진출 확대가 유망하다.

식품포장용 연포장재는 제품의 특성상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비성이 매우 강한 품목으로서 효과적인 마케팅 여부에 따라 수요

창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품목이다.

특히, 캐나다 자체 수요뿐 아니라 인근 대형 시장인 미국에 인접해 있어 대부분의 캐나다 수입상들이 미국시장에도 진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트 마켓으로서 미국시장 진출의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는 시장이다.

현지 수입상들에 따르면, 캐나다 소재 포장재 제조업체의 경우 플렉소 그래픽(Flexo Graphic) 인쇄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그라비아(Gravure) 인쇄방식을 사용하는 한국산 제품이 품질 및 가격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日, 농산물 품질표시기준 변경추진 내년 초 정기국회 법안 상정 전망

일본농업규격(JAS)제도의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산하 연구회가 농산물 품질표시기준의 적용범위를 카탈로그 판매 및 인터넷 판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기함에 따라 일본 농업규격 자체의 수정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농수산물 산하 'JAS 제도의 존재방식 연구회'가 지난 6월 29일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간보고한 것에 따르면, 품질표시기준의 확대이 외에도 환경배려형 상품, 고품자 배려형 상품 등에 대한 신규격 추가 등도 포함돼 있는데 농수성은 이같은 건의를 토대로 JAS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 있어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이번 중간보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까지 애매하게 표현되고 있는 JAS 규격을 '특색규격' 과 '표준규격' 으로 나눈 점이 눈길을 끈다. 특색규격은 표준보다 품질이 더 뛰어난 규격을 지칭하며, '표준규격' 은 생산 및 거래의 기준으로서 품질을 표시한 규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규격기준 3가지를 제창하고 있는데 우선 상품의 표시가 정확한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규격을 비롯, 트레이스빌리티(생산유통이력 추적체계) 등 유통방법을 증명하는 규격,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규격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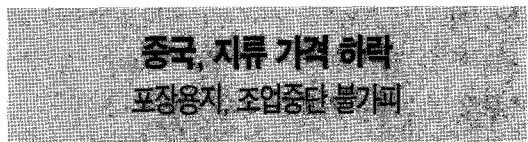
셋째, JAS 규격과 함께 이 제도를 뒷받치고 있는 품질표시기준과 관련, 의무표시 대상품목으로서 카탈로그 통신판매 등을 포함토록하고 광고시의 근거서류 보관 의무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마요네즈, 드레싱 등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현실성을 상실하고 있는 점과 관련, 개별품목의 품질표시기준에 대한 명칭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식품 메이커나 소비자 모두를 배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10월 18명의 전문가로 출범한 동 연구회는 위장표시사건 등으로 드러난 제품 표시문제와 관련, 소비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품질표시 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판매업자에게 표시의 근거가 되는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를 새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수성은 이번 안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의견 조희과정을 거쳐 이번 가을에 최종안을 마련

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정기국회에서 심의해 확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본의 농업제품 규격은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대일 수출에 있어서도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의 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지업계가 중앙정부의 경기 과열 우려 표명과 하절기 전력 공급 부족에 따른 조절 정책 이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제지업계의 매출 및 지류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으며 특히 포장용지의 경우 원료 및 부대비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상태이다.

아시아 시장에서는 신문용지 가격이 톤당 35~40\$ 정도 인상됐으나, 중국 내수가격은 오히려 48\$ 정도 하락했다. 이런 가격 하락은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신문용지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향상을 위해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른 지종들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분기에 경량 도공지, 백상지 생산업체들은 펄프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인쇄 및 출판업자들이 펄프 가격 랠리에 대비 재고 확보에 나섰으나, 2분기 들어 펄프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고, 종이 가격 또한 소폭 하락했다.



포장용지 부분에서는 제지업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전력부족으로 인해 하절기 들어 일주일에 1~2일 정도의 조업중단이 불가피한 상태이며 대규모 시설들은 자가발전을 이용하고 있으나 천연가스 및 석유 선택 비용상승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백판지 및 골판지 원지 생산업체들은 이러한 비용상승 부분을 가격에 적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주량 감소로 2분기 가격은 하락했다.

공급과잉은 제지업계를 불안케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2분기에 백판지 및 골판지 신증설이 이뤄지고 있어 바이어들은 물량확보보다 이러한 신증설로 인해 조만간에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촉발하기 위해 생산업체들을 자극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美,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성분 표시 의무화**  
땅콩, 우유, 계란 등 8개 성분

미국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성분 표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농업무역관은 지난 3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곧 처리될 예정이며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소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땅콩,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 밀, 콩 등 알레르기 유발 확률이 높은 8개 성분을 식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들 성분은 전체 음식 알레르기 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카제인(casein 유즙 단백질)'이나 '오발부민(ovalbumin 계란 단백질)' 등 전문 용어만으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 새로운 식품라벨 기준 실시 예정**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

내년 10월 1일부터 2개항의 새로운 식품라벨 기준이 실시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강화된다.

새로운 기준은 제품의 라벨에 동일한 상품표시 코드를 사용해야 하며 또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감미제, 방부제, 착색제는 새로운 기준에 의해 안식향산나트륨, 사카린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2항의 새로운 강제성 국가표준은 '포장식품 라벨통칙'과 '포장특수음식 식품라벨통칙'으로 국가품질검사총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비준 발표했다.

새로운 표준에는 포장물 혹은 포장용기 최대 표면적의 계산방법, 영양성분함량, 영양성분함량 비교, 영양소 작용의 표시방법 등이 포함되며 동시에 최근 관련기구에서 발표한 '상품표시표준규정', '정량포장상품계량감독규정' 등에 포함된 식품라벨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새로운 표준은 식품 라벨의 진실성을 강화해 식품 생산자가 제품의 명칭을 이용한 식품의 진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K]